

기독교대학의 영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백석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춘식(백석대학교)*

I. 서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창 1:27), 태어날 때부터 영성을 지니고 있다. 영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기에 ‘타락’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았다. 죄가 그것을 망가뜨리고 더럽혔지만, 인간의 본성 속에는 여전히 영적 속성이 자리잡고 있다.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영성은 회복되고 계발되도록 지음을 받았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영성도 자라나게 된다(장화선, 274).

바람직한 교육은 지성, 감성, 인성,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인물을 길러내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의 본질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주입식의 획일화된 교육과 스펙쌓기에 몰두하는 대학의 현실은 상상력을 막고 창의성이 짝을 띄우지 못하게 한다.

지식교육만으로는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바꿀 위대한 인물이 될 수는 없다(김춘식, 9). 영성이란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이며 전인적 인간을 추구한다면 대학 교육에서도 영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영성이 적극적으로 발견되고 계발되어야 한다. (장화선, 296; 정정미, 385).

기독교대학은 설립 목적이 기독교적인 지성, 인성과 영성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는데 있다. 이 글은 영성교육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고, 영성교육을 위한 방법을 검토한 뒤 기독교대학인 백석대학교의 영성교육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통해 영성교육 방법론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백석대학교 교수(행정학)

II. 영성과 영성 교육

1. 영성(spirituality)이란 무엇인가?

1) 영성의 개념

영성(spirituality)이라는 용어는 가톨릭교회와 동방정교회에서 주로 사용하였고 기독교 외의 종교에서도 오랫동안 쓰여왔다(김도일,3). 개신교에서는 영성을 신비주의, 수도원주의와 연관시켜 생각하여 영성 대신 경건, 헌신, 완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 개신교 내에서도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한국교회 역시 1980년 이후 영성에 관해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영성이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종교적 차이와 신념과 신학의 입장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의 영성, 힌두교의 영성, 이슬람교의 영성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 안에서는 가톨릭의 영성, 켈틱의 영성, 해방신학의 영성 등이 논의되기도 한다(김은미 197-198).

이처럼 영성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 정의에 있어서 애매성과 모호성을 보여왔다. 애매성이라는 것은 ‘영성’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모호성이란 영성과 비영성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김도일, 4).

김은미는 기독교 영성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영성, 또 하나는 전인적인 경험으로서의 영성이다. 먼저 기독교 영성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영성의 기원과 근거를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에 뉘으로써 기독교인의 삶이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영성은 인간의 활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심오한 인격적인 교제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예민해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독교인은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믿음으로 영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엘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는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완전한 이해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의 전체를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은미, 205에서 재인용)

둘째, 전인적인 경험으로서의 영성이다.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총체적인 혹은 전인적인 경험을 의미한다. 문석호는 영성을 “인격적인 신을 향한 전인성의 추구”라고 정의하였다. 기독교 영성이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기독교인의 삶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문석호,183).

감리교회의 창설자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는 영성을 성서에 기초하여 개인의 내면적 성화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를 변혁시키는 차원에까지 그 외연을 확대한 통합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역사 참여, 즉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 영성을 주장한다. 그는 성서와 체험을 중시하는 개신교 영성운동을 전개하여 18세기 영국 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변혁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다(김정준, 21). 웨슬리 영성신학의 특징은 성서에 확고한 기초를 두고 있으며, 영성생활의 목표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성(christian perfection)에 두고 있다.¹⁾

개혁주의 전통에서 영성을 의미하는 용어는 ‘경건’이다. 존 칼빈(John Calvin ; 1509 - 1564)은 《기독교강요》에서 경건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들을 알 때 나타나는 경외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연관된 것’으로 정의하였다(김은미, 209).

칼빈이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필수적인 것이다. 경건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칼빈의 경건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경건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기도이다(주정관, 162).

주정관은 “영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에 이르는 삶이며, 이 관계의 삶을 성령의 도우심과 더불어 지적, 정적, 의지적 동의로 추구하려는 총체적 영적 실체이다”라고 주장한다.(주정관, 164).

위와 같은 정의들을 토대로 나는 영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기독교 영성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능력이다.

영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관계성이다. 테이시(D. Tacey)는 영성을 ‘보이지 않는 신성한 존재와의 정서적 관계를 통한 연합’으로 정의한다(정정미, 386쪽 재인용). 홈즈(U.T. Homes)는 영성을 인간의 관계형성능력이며, 그 관계의 대상은 감각현상을 초월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그는 영성을 세 요소로 분류해서 ① 기독교 영성은 본질이 아니라 관계성이라는 것, ② 그 관계는 초월자와의 인격적인 관계의 삶을 통하여 초월을 체험하는 것, ③ 초월자와의 관계에서 체험되고 확장된 우리의 인식은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행동을 통하여 구체화된다고 한다(김규섭, 9쪽에서 재인용).

2. 영성교육

영성교육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자신 안에 영성이 있음을 알고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영성을 이끌어내어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성교육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혹은 성숙하도록 이끄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장화선, 279).

1) 웨슬리는 인간의 영적 변화는 영성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과 삶의 온전한 거룩함으로 완성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완전성이란 인간의 죄성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이라고 한다(김정준, 23).

영성교육과 관련된 개념으로 영성 훈련이라는 용어가 있다. 교육이란 학습자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는(라틴어 educare) 것으로서, 저마다 다른 학습자들의 개성과 능력에 따라 계발에 힘쓰는 것이다. 훈련은 행위를 형성하고 가꾸어나가기 위하여 사용되는 교수방법이다. 영성지도와 관련하여 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축소적 표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성은 행동의 변화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 마음의 습관 혹은 성향을 변화시키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이다.(김도일, 9)

1) 영성은 가르칠 수 있는가?

영성은 영혼의 성품이며, 총체적인 삶의 경험인데 과연 영성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하여 김도일(2010)은 영성 그 자체를 가르쳐서 얻게 하거나 줄 수는 없어도 영성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사모케 하고, ‘영성적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학습자를 도와줄 수는 있다고 주장한다.

영성교육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가운데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앙적 고백과 기독교적 삶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실천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영성이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만들어져가는 것이다(김도일, 9)

2) 영성교육은 왜 필요한가?

인간은 누구나 영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이 영성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가능하다. 즉, 기독교 영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자신, 이웃, 공동체, 세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삶의 양식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인간이 지닌 영성은 계발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개개인의 영성교육 및 영성훈련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김규섭, 17-18)

① 지식교육의 한계와 통전적 교육의 필요성

전인적 교육을 위해서는 지성, 감정, 인성, 영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영성교육보다는 머리와 지식 축적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임영택, 125)

파머는 기존교육이 실패한 원인이 세상을 파편화된 방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을 파편화된 방식으로 보지 말고 전체로 보아야 한다. 지성은 감정과 함께 기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마음을 열고자 한다면 그들의 마음도 함께 열어야 한다” (파머, 134). 파머는 영성의 형성을 통해서 교육의 온전성이 완성된다고 한다.

지식교육도 자체도 파편화되었다. 학문을 조각조각 나누고 취업과 실용이 강조되면서, 취업에 당장 필요한 토익 성적이나 자격증 등 스펙 쌓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스펙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스펙에는 영성과 감성,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성(humanity)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간의 본질 및 본성이다. 파편화된 인간성이란 뜻은 전체에서 떨어져 나와 깨어져 조각이 나 인간답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의미한다(김도일, 11). 파편화되고 불완전한 인간성은 영성이 발현될 때 완전하여진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통전적 교육(Holistic Education)으로서 영성교육이 필요하다.

Astin, Astin과 Lindholm(2011)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236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영성과 대학생활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영성의 성장이 학점, 심리적 안녕, 리더십과 대학 생활의 만족도와 같은 다른 성과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Astin, Astin과 Lindholm, 137-157).

② 윤리도덕 교육의 한계와 영성교육의 필요성

의사이자 영성가인 데이비드 호킨스(David Hawkins) 박사는 행동운동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인간의 의식과 감정의 레벨을 수치화하여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그에 의하면 화가 나거나 속이 상했을 때, 질투가 났을 때, 우울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근육의 힘이 약해졌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즐거운 영상을 떠올리면 한결같이 힘이 강해졌다. 그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수천 번의 실험을 거쳐 ‘의식의 지도’를 만들었다

호킨스 박사의 의식의 지도가 갖는 메시지는 높은 에너지와 결합하면 성공과 건강이 찾아오고, 낮은 에너지와 결합되면 실패와 질병이 초래된다고 한다. 신체를 강화시키는 높은 잠재력의 패턴은 뇌속에서 베타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켜 모든 기관을 튼튼하게 해 주지만, 분노와 두려움, 슬픔과 죄의식 같은 낮은 수준의 의식상태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면역 반응을 억누르고 신체기관들을 약화시킨다(김춘식, 227).

호킨스에 의하면 에너지 수준 500(사랑, love)의 수준에 이르면 조건 없는 사랑, 용서와 보살핌,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예외 없이 친절하게 대한다.

540(기쁨, joy)의 수준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 성인(聖人), 치유자, 그리고 그 제자들의 영역이다. 성경에는 치유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의 치유는 육체의 치유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도 함께 일컫는 말이다.

사랑에 조건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면의 기쁨이 점차 차오르게 된다. 이 수준에서의 기쁨이란 흔히 말하는 ‘즐겁다’거나 ‘기분이 좋다’는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활동에 동반되는 항구적인 것이다. 기쁨이란 외부의 어딘가에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매순간마다 솟구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할 때의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다. 성령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고쳐준 사건(사도행전 3:1~10)도 바로 이러한 상태이다.

600(평화, peace)의 수준에서는 초월이나 자아실현 등의 용어로 묘사되는 경험과 관련이 깊다. 이 수준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주관과 객관의 차이가, 또 특별한 관점이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다. 오순절 성령체험과 같은 성령체험의 상태일 것이라도 생각된다. 700 ~ 1,000(깨달음, enlightenment)의 수준은 역사에 기록된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데이비드 호킨스, 84-89)

나는 에너지 수준 175(자존심) ~ 500(사랑)의 상태는 인성의 영역이고, 505(사랑) ~ 1,000(깨달음)의 상태는 영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인성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영성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김춘식, 227).

영성은 도덕과 윤리의 단계를 넘어 인간의 존재성과 함께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 본래적 영성을 회복하게 되면 인간은 비로소 온전한 사회성을 회복하는 영성, 온전한 협력정신을 회복하는 영성, 온전히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성이 된다.

<표1> 의식의 지도

대수의 수치	의식의 상태	감정, 태도와 행동	영역	
700 - 1000	깨달음	언어이전, 순수의식	윤리 • 도덕의 영역	영성의 영역
600	평화	축복, 자유, 자각, 항상 존재하는 , 완전한		
540	기쁨	고요함, 거룩함, 존재의 순간마다 내면에서 기쁨이 솟아 오름		
500	사랑	조건없는 사랑, 용서와 보살핌, 자비, 연민		
400	이성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 높은 이해력, 현명함		
350	포용	균형, 관대함, 화목,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능력		
310	자발성	낙관, 다른 사람에게 진실로 친절하게 대함, 남을 도우려는 마음. 기꺼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응함		
250	중용	편파적인 관점으로부터 해방, 온화함, 정서 안정		
200	용기	긍정, 힘을 줌, 장애물을 만나도 자극제로 활용함 탐구, 성취, 인내, 결단의 영역		
175	자존심	좋은 덕목으로 평가되어 옴. 자만심으로 바뀌기 쉬움		
150	분노	좌절된 욕구에서 생김, 미움, 공격적임, 복수에 찬, 적대적인, 증오로 전환되기 쉬움	어둠의 영역	
125	욕망	금전, 명예, 권력에 대한 욕망, 갈망		
100	두려움	근심, 걱정, 초조한, 두려운, 조바심, 강박관념		
75	슬픔	외로움, 후회, 낙담, 비탄, 공허, 후회와 우울함으 로 살아감		
50	무기력	절망적임, 지침, 자포자기, 희망의 포기상태		
30	죄의식	자기연민, 자기비난, 자학증상		
20	수치심	굴욕적인, 멸시당함, 비참함. 위험할 정도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상태		

출처 : 데이비스 호킨스 저, 이종수 옮김. 의식혁명, 63쪽. 저자가 수정 보완함

3. 거듭남과 영성의 문제

인간의 영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구주임을 시인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로마서 8:9)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된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모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거듭난 성도들은 세속의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내안에 거하시는데 왜 성령의 역사하심을 속에서 살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영적으로 자라나기 못했기 때문이다. 성령이 역사하게 하려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듭난 생명이 매일 매일 자라나고 성숙하게 해야 한다. 영적 성장은 끝이 없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성장 또는 영적 성숙이라고 말한다.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한다.

영적으로 미숙하고 둔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한다. 성령이 역사하게 하려면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길러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1) 영성의 성장 요소와 영적 성장의 방해요소

<표2> 영성의 성장요소와 영성을 방해하는 요소

영성을 자라게 하는 요소	영성을 방해하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배 • 성경읽기와 연구 • 기도 •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 • 제자도 훈련 • 사랑과 봉사의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체의 소욕(갈라디아서 5:17) 싸움의 상대가 혈과 육 • 마귀의 세력(에베소서 6:10-20) 싸움의 상대는 통치자, 권세자, 악한 영들 • 영적 둔감성

영성이란 근육과 같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말은 영적 근육이 길러지고, 촘촘하게 연결되고 튼튼해졌다는 말과 같다. 어떻게 하면 영적 근육을 기를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영적 민감성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훈련을 하고, 사랑과 봉사의 실천을 할 때 우리의 영적 근육은 길러진다.

영적 근육이 길러진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의 두뇌에서 영성 영역에 해당하는 좌측

전전두엽의 뉴런에 새로운 시냅스가 생겨나고 튼튼해진다는 말이다. 신경과학자인 에릭 캔델은 우리가 반복해서 학습할 때 우리 두뇌의 신경세포(뉴런)에 새로운 신경 회로망이 자라나는 것을 증명하여 노벨상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다. 이것은 세속적인 공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할 수 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영적근육이 더욱 튼튼해지고 끊어졌던 연결망이 회복되고, 대뇌의 영성 영역의 DNA가 연결되고 재생되어 육체의 치유는 물론 영혼의 치유도 일어나는 것이다.

2) 성령의 역사를 막는 요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막는 요소는 세 가지이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둘째는 마귀의 역사이고, 셋째는 영적 둔감성이다.

(1)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이 활동하지 못하고, 성령에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이 활동하지 못함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 인간의 욕심상태에 있으면 성령이 활동하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17)

성경은 육체의 일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을 예로 들고 있다(갈라디아서 5 :19-21).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faithfulness), 온유, 절제이다(갈라디아서 5 : 22-23)

(2) 마귀의 세력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의 하나가 육체의 소욕이라면 다른 하나는 마귀의 세력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12-13)

이러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한 구하여야 한다(에베소서 6:18).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므로 반드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영성교육이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영적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다.

(3) 영적 둔감성

영성이란 근육과 같다. 사용하고 훈련하면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화된다. 영적 성장도 우리가 예배에 빠지고, 성경공부를 소홀히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사랑이 메마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 대해 점점 둔감해지게 된다. 영적 둔감성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메말라 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마음이 사라하 사막같이 메마르게 되면 신학적인 지식들은 우리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영적인 황폐함을 체험하고 친구들과 배우자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진다. 기도도 하지만 허공을 떠도는 말처럼 느껴진다. 성경을 보기도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음악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도 하지만 그들 역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뒤에서 험담을 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리처드 포스터, 34-35).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몸을 부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1-3)

3) 영적 성장의 두 가지 루트

영적 성숙과 영적 체험은 우리에게 두가지 방식으로 다가온다. 하나는 지속적인 영성교육과 훈련(예배, 성경공부, 기도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강력한 성령체험을 하는 것이다.

먼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영성 교육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 신앙을 가진 교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학습자를 양육하고 훈련할 때 영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인간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조심스런 양육을 통해 성숙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성은 점진적으로 성숙한다(김규섭, 7).

둘째는 강력한 성령체험을 통해서이다. 영적인 신비체험을 하게 되면 황홀경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점에서 전자와 다르다. 성령체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신비 체험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때에만 주신다(리처드 포스터, 221-223).

Ⅲ. 영성교육의 목표와 방법

1. 영성교육의 목표

영성교육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삶에 가능한 한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즉,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영성은 예수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시니 곧 그리스도라(엡4:15).”

우리는 영적 생활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성장과 변화와 성숙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리처드 포스터, 86).

이레니우스(Irenaeus, 136-202)는 인간을 영, 육의 존재로 보며, 이 두 요소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말한다.²⁾ 영과 육이 온전해 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영과 육의 완전한 조화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레니우스가 보는 영성은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김규섭, 10쪽에서 재인용).

영성은 개인적 영성뿐만 아니라 신앙공동체의 영성도 필요하다. 신앙공동체의 영성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난다. 공동체 영성의 특징은 나눔이다. 말씀을 나누고(설교와 교육), 물건을 나누고, 떡을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 기도하기를 힘썼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였다. 기도를 나누는 영성은 중보의 기도행위이다.

영성교육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함으로써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선하고 유능한 인재를 만드는 데 있다.

기독교 영성에서 그 초월성의 대상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결국 기독교 영성계발의 목적은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과 예민성을 기르는 것이다(정정미, 387).

영성교육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 가운데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신앙적 고백과 기독교적 삶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실천될 수 있도록 돕는 그리하여 개인적 신앙 정체성과 신앙적 체험이 공동체의 삶과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도일, 8).

2. 영성교육의 방법

칼빈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의 개혁정신을 이루려고 했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

2) 이분설에 따를 때 육은 하드웨어인 신체와 소프트웨어인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는 경건훈련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는 성경 읽기와 연구, 기도, 금식, 자기 부인을 들고 있다.(김은미, 213-214)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리(John Wesley)는 그가 추구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목표로 다양한 수련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방법들을 ‘은총의 수단 (Means of Grace)’ 이라고 불렀다. 그가 제시한 은총의 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일반적인 은총의 수단, 제정된 은총의 수단, 상황적 은총의 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존 웨슬리의 은총의 수단

구분	의미	방법
일반적 은총의 수단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성도가 준수해야 할 사항	하나님의 계명준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짐
제정된 은총의 수단	성경과 교회사의 전통에서 변할 수 없는 제도적 성격의 수단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경건한 행위	예배 기도 성경공부 성만찬에 참여 금식과 절식 크리스찬 컨퍼런스
상황적 은총의 수단	제도적 은총의 수단을 초월하는 성령의 인도로 은총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는 이성과 경험에 기초한 수단	찬양 선행의 실천 악행의 금지 병자와 수감자를 방문 가난한 사람을 도움 영적 일기 쓰기 기독교 고전 읽기

그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도 존중하였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께 응답하는 신앙실천의 수단 혹은 방법들을 말한다. 웨슬리는 영성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확실히 믿었다. 동시에 이 은총과 함께 인간의 객관적인 수단을 강조하였다.

이하에서는 기독교대학에서 실천가능한 영성교육의 방법들을 검토해 본다.

1)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즐겨하며, 우리는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할 수 있다(주정관, 164).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경배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억지로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자발적이고 즐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모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 했다(신명기 6장 5절)

2) 성경 읽기와 연구

기독교에 있어서 영성생활의 유일한 규범과 기초는 성서이다. 성서는 하나님의 계시와 행위 하심에 대한 증언이다.

하나님을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성경공부이다. 성경공부는 영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것이다.

설교나 성경공부와 같은 공적인 기회를 통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칼빈은 경건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연결하여 이해하였다. 그리고 개혁주의 전통에서 성경은 신자들의 삶의 중심이며, 영적인 삶을 위한 안내자이며 규범으로 간주하였으므로 개인적인 성경읽기와 연구는 경건훈련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여겨졌다(김은미, 213).

웨슬리의 영성생활과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준과 자료는 성서였다. 웨슬리는 감리교도들의 영성생활의 핵심적 소그룹이었던 속회(class)를 통하여 성서 연구를 권장하였다.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 생활을 반성하고 나누는 간증을 통해서 권면하고 충고하고, 위로를 받음으로써 더욱 성화된 삶을 추구하였다. 그는 성서탐구를 세분하여 성서를 읽고(reading), 듣고(hearing), 묵상(meditating) 해야 할 것을 가르쳤다. 그는 성서탐구의 태도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문자보다 성서가 가르치는 정신에 따라 비판적 성찰을 통하여 삶을 구현하려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김정준, 28).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성경구절을 읽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글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리처드 포스터, 202)

3) 기도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생활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 소원하게 된다(김은미, 213)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하나님의 마음, 곧 우리의 본향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이다. 본향에 들어가는 열쇠가 기도라면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문을 통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리처드 포스터, 15).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한복음 16 : 23-24)

기도훈련은 영성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이다. 존 웨슬리는 제정된 은총의 수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기도였으며, 영성생활의 핵심적 활동이었다 (김정준, 26). 칼빈은 기도를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일부라고 믿었다 (주정관, 168).

리처드 포스터는 기도도 훈련과 연습을 거듭해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단 한번의 시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단계까지 뛰어오를 수는 없다. 영적능력은 하루 아침에 배양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달려있다. 일정 기간 동안 한결같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야 가능하다. 능숙한 피아니스트도 처음부터 그렇게 건반위를 날렵하게 움직이지는 못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연주기법을 가지고도 몹시 괴로워했을 것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이다. 연습을 통하여 어떤 일에 숙달하게 된다.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기도가 전인격 속에 스며드는 것이다. 기도가 숨쉬듯 자연스럽게 되며, 기도가 우리 속에서 강렬한 리듬을 만들어 낸다(리처드 포스터, 173-174). 마음의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유한한 인간의 영이 완전히 민감하게 깨어서 무한한 우주의 영, 하나님의 영과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 (리처드 포스터, 188). 우리가 기도하는 온전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이상과 생각 속에 들어가 그와 연합하는 것이다(리처드 포스터, 215).

기도를 생활화 하는 방법은 정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이다. 늘 기도한다는 것은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의미한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일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기도의 영성을 찾는 일이다(임영택, 139).

4) 제자도 훈련

제자도 훈련이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경건은 자기 부인의 훈련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가복음 8:34) 라고 말씀하셨다. 자기부인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이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부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암시한다(김은미, 215). 자기부인이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것이며,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운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주정관, 168).

성도의 삶에 있어서 자기부인이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자기부정은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단한 노력과 기도의 결실로 조금씩 자신의 생각과 뜻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은 자리에 주님의 뜻, 주님의 가치관으로 채워지게 된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자기부정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부정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자기부인이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하며 그의 지혜와 그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주정관, 168).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과 순종을 의미한다. 내가 죽을만큼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5) 사랑과 봉사의 실천

제자가 되는 일은 먼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에서 출발한다. 성경에는 가진 것을 나누지 못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온다(마태복음 19: 16-2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충고하신다(마태복음 20:27). 욕심을 버리고 남을 섬기는 것은 나눔의 영성이며 제자의 길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두 가지는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다(리처드 포스터, 205).

IV. 영성교육의 사례 분석

이 장에서는 기독교대학인 백석대학교에서 영성교육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커리큘럼과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영적인 성장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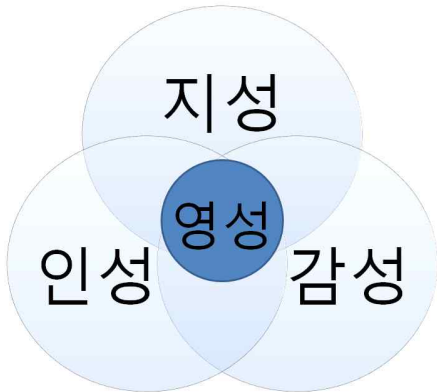
1. 교육이념과 교육목표

백석대학교는 설립목적이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백석학원의 설립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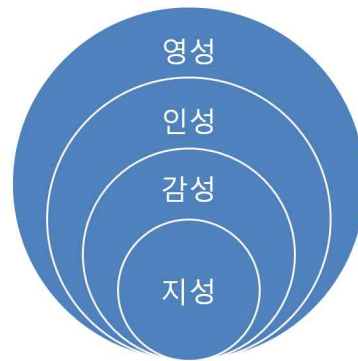
“백석학원의 설립, 백석학원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 대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은 다른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대학이 다른 대학과 동일한 교육을 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대학에 또 하나의 대학이 더해진 것에 불과합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바꾸어 가는 일입니다.

도덕교육, 윤리교육 만으로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백석대학교의 요람에서는 백석대학교의 교육목적으로 ‘기독교적 인성, 영성, 감성, 지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들고 있다 (2015 백석대학교 요람, 26).



<그림1> 영성의 포섭원리



<그림2> 영성의 포괄원리

그렇다면 지성, 감성, 인성, 영성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들 4개의 특성은 서로 관련이 없이 나열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내재적인 면에서 보면 영성은 지성, 감성, 인성을 포섭하고 있고, 외면적인 면에서 보면 영성의 형성을 통하여 교육의 온전성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영성은 지성, 감성, 인성을 포괄하고 있다(고요한, 16 참조).

여기서 지성이란 A학점을 많이 받거나 토익성적이 높거나 자격증을 많이 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느나야의 문제보다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서 학문에 대한 호기심을 육성하고, 궁금해하도록 고무하고, 자신감을 심어주어 몰입하고 공부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감성이란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다. 감성지능(EQ) 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욕을 잃지 않게 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고뇌 때문에 사고 능력이 방해받지 않게 하며, 감정이입과 희망을 키워주는 능력인 것이다(감성지능, 상 78쪽). 심리학자인 샬로비(Salovey) 박사는 감성지능을 다섯 가지 범주로 표현하고 있다(대니얼 골먼, 96-97). 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②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③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④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⑤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이다(감성지능, 상, 96-97).

인성이란 인간으로서의 선하고 바람직한 품성을 말한다. 인성에 해당하는 품성으로는 용기, 사랑과 인간애, 정의감, 절제력 등이다.

2. 영성교육 프로그램과 효과

1) 영성지수는 측정할 수 있는가?

지능지수(IQ)는 머리로 주어진 환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감성지수(EQ)는 남과 함께 감정을 교류하는 공감 능력과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영성지수(SQ : spiritual quotient))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삶을 사는 척도와 능력을 말한다.(임영택, 138).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심리학》에서 영성과 초월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감사, 감사, 희망, 영성, 용서, 유머감각, 열정의 6가지를 들고 있다(마틴 셀리그만, 246~254). 그 중에서 영성과 직접 관련되는 지표와 질문들은 <표4>와 같다. 이 문항들은 긍정적인 질문과 부정적인 질문을 쌍으로 묶어서 구성하고 있다.

<표4> 영성의 측정 지표와 설문지

지표	설문지 문항
감사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항상 고맙다고 말한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희망, 낙관주의	항상 긍정적인 면만 본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한 적이 거의 없다
영성, 신앙심	삶의 목적이 뚜렷하다 사명감이 없다
용서와 연민	과거의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기어코 복수하려고 애쓴다

꽃동네대학의 양은미 교수는 Astin, Astin, Lindholm의 연구를 토대로 자기 대학의 특성에 맞게 설문지를 두성하여 매년 신입생의 영성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5>와 같다.

<표5> 양은미(2012) 영성 요인과 지표 내용

요인	내용
영적 탐색	의미있는 인생철학 개발 내 삶의 아름다움을 찾음 내면의 조화를 이룸 지혜를 얻음 삶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찾음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되는 것
평정심	내 삶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 만족함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함 매일 매일을 선물로 봄
영적 자각	내 삶에 영성 통합하기 영성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 영성에 관심을 가짐 삶의 성스러움을 믿음
보살핌과 봉사	사회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에 있는 다른 이들을 돕기 환경을 정화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고통과 세상의 괴로움을 줄이는 것 자원봉사의 빈도 사회활동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보편적 세계관	타인에 대한 이해 인간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이다

출처 : 양은미(2012) 대학 신입생들의 영성과 대학교육의 역할에 대한 탐구,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1호. 304-305

2) 대학예배와 기독교인성과목이 기독교 영성에 미친 영향

백석대학교는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과과정과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영성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영성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으로는 대학예배는 매주 1시간(1학점)으로 8학기 동안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성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독교인성 과목도 매주 1시간(1학점)으로 8학기 동안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대학예배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예배 및 기독교 인성과목이 영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재학생 13,000여명 중 11,000명 이상이 응답한 조사결과이다.

가. 기독교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①. 기독교 인성과목 수강³⁾을 통해 기독교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4.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17.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3) 기독교인성과목으로는 애덤앤 이브, 기독교탐사1.0, 구약성경의 이해, 신약성경의 이해, 기독교윤리, 기독교세계관, 직업과 비전, 기독교 역사인물의 8과목이 있다.

<표6>기독교 인성과목 수강을 통해 기독교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단위 : %)

	2011-2	2012-2	2013-2	2015-1	평균	
매우그렇다	21.4	19.6	18.9	17.7	19.4	44.1
그렇다	23.6	24.3	22.6	28.4	24.7	
보통이다	37.3	38.7	38.1	37.3	37.4	37.4
그렇지않다	10.3	10.1	10.2	8.6	9.8	17.8
매우 그렇지 않다	7.2	6.7	10.2	8.0	8.0	

② 대학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41.6%가 그렇다, 19.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7> 대학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단위 : %)

	2013-2	2014-2	2015-1	평균	
매우 그렇다	19.1	18.8	16.1	18.0	41.6
그렇다	22.0	22.3	26.4	23.6	
보통이다	38.6	38.4	40.0	39.0	39.0
그렇지 않다	10.2	10.6	9.5	10.1	19.3
매우 그렇지 않다	9.9	9.8	8.0	9.2	
계				100	

나. 예수님을 믿음

① 기독교인의 비율

<표8> 신입생의 기독교인 비율

(단위 : 인/%)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
기독교인 수	1,265	1,208	1,373	1,251	-
기독교인비율	49.7	47.3	48.5	46.4	48.0

자료 : 2011~2014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백석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표9> 재학생 중 기독교인 현황

(단위 : %)

	2011-2	2012-2	2013-2	2014-2	평균

응답자수/ 응답률	10,173명/ 82.98%	11,196명/ 89.3%	11,764명/ 94.5%	11,559명/ 93.7%	
1학년	57.1	52.2	51.3	50.8	52.9
2학년	54.6	55.3	51.7	49.7	52.8
3학년	55.1	55.1	53.9	51.4	53.9
4학년	54.7	55.5	53.8	52.2	54.1
계	55.4	54.5	52.7	51.0	53.4

<표8>은 입학 당시에 조사한 기독교인의 비율이고 <표9>는 매 학년 말에 조사한 기독교인의 비율이다. 이 두 표를 분석해 보면 기독교인의 비율이 입학 당시에는 48.0%였는데 1학년 말에 52.9%로 1년 동안 약 4.9%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대학예배는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 비율은 4학년 올라갈 때까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표9>에 의하면 이 비율은 2학년때까지 그대로 가다가 3, 4학년으로 갈수록 미세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 입학 후 대학예배 시간에 세례를 받은 인원은 평균 174명으로 나타났다 <표10>

<표10> 재학생 대학예배시 세례자 수 (단위 : 인)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
백석대학교	169명	192명	163명	173명	174명

자료 : 교목실. 세례자 수 통계

② 신앙의 정도

㉠ 기독교인중 세례교인의 비율

<표11> 기독교인 중 세례교인의 비율

(단위 : %)

	2013-2	2014-2	2015-1	평균
세례교인 비율	80.4	82.4	82.5	81.8

기독교인 중 세례교인의 비율은 평균 81.8%로 나타났다.

㉞ 교회참석 현황

<표12> (기독교인이자면) 지난 한 해 교회는 얼마나 참석하셨습니다까? (단위 %)

	2011-2	2012-2	평균	
매주 참석	40.6	39.4	40.0	46.9
격주 참석	7.2	6.6	6.9	
한달에 한번	3.8	3.5	3.7	
1년중1-2회	31.7	33.1	32.4	34.5
과거에 다님	2.0	2.2	2.1	
계	10,173명/ 응답률 83%	11,195명/ 응답률 89.3%	응답률 85.1%	

기독교인 중에서도 매주 교회에 참석한다는 비율은 약 40%로 나타났으며, 격주에 한 번 참석한다는 인원까지 합치면 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중 한 두 번 교회에 나가거나 과거에는 교회에 다녔으나 현재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무늬만 기독교인인 학생도 3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㉟ 구원의 확신

<표13> 귀하는 구원의 확신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까?(단위: 인/%)

	2013-2	2014-2	평균	
응답인원/ 응답률	6,246명/ 50.2%	5,900명/ 47.8%		
매우 확신	65.4	65.5	65.5	85.2
확신	19.5	19.9	19.7	
반신반의	9.1	8.9	9.0	
의심	4.9	4.8	4.9	5.8
매우 의심	1.0	0.8	0.9	

응답자의 85.2%가 구원의 확신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입학당시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비율 평균이 74.2%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고무적이다.

<표14> 신입생의 구원의 확신 정도 (단위 :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
매우확신 및 확신	77.8	71.6	75.5	72.0	74.2

자료 : 2011~2014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백석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다. 영성교육의 유용성

① 대학예배에서 설교가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47.2% 로서 부정적인 응답(16.7%)의 두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15> 설교의 유용성 (단위 : %)

	2011-2	2012-2	평균	
매우그렇다	21.5	20.2	20.8	47.2
그렇다	26.6	26.2	26.4	
보통이다	32.5	33.9	33.2	33.2
그렇지않다	7.9	8.3	8.1	16.7
매우 그렇지 않다	6.6	6.5	6.6	

(단위 : %)

② 대학예배 등의 기독교 교육을 통해 귀하의 인성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41.6%)는 부정적인 응답(17.4%)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16> 대학예배와 인성의 변화 (단위 : %)

	2015-1	
매우그렇다	16.3	41.6
그렇다	25.3	
보통이다	40.9	40.9
그렇지않다	9.2	17.4
매우 그렇지 않다	8.2	

③ ‘기독교 인성 과목’ 수강을 통해 귀하의 인성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서는 긍정적인 응답(41.3%)이 부정적인 응답(17.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왔다.

<표17> 기독교인성과과목과 인성의 변화(단위 : %)

	2015-1	
매우그렇다	16.2	41.3
그렇다	25.1	
보통이다	40.8	40.8
그렇지않다	9.4	17.8
매우 그렇지 않다	8.4	

마. 소결론

백석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알게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대학예배와 기독교인성과목을 매학기 각각 1시간씩 이수하게 하고 있다.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기독교인의 비율은 입학당시의 조사에서는 48.0%였는데 1학년 말에 52.9%로 약 4.9%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는 완만하게 증가하여 4학년말에는 54.1%로 입학당시에 비하여 기독교인의 숫자가 5.9%까지 증가하였다.

기독교인 중 세례교인의 비율은 81.8%로 양호하나, 신앙생활을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응답자의 55.1%만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가고, 나머지는 무늬만 교인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원의 확신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입학당시에는 74.2%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답하였으나 과목 이수 후에는 85.2%가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약 11%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 관련 교과목이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학예배는 41.6%가, 기독교 인성과목은 41.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에 비추어볼 때 대학예배와 기독교인성과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기타 프로그램

백석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영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성개발원에서 학생들의 인성을 특성화하기 위한 ‘백석인증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백석인증제는 15주간의 이론교육과 4주간의 합숙 및 캠프훈련, 그리고 15주간 고교생을 대상으로 인성을 실천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인증서를 수요하고 있다.

사회봉사센터에서는 매 학기별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사회봉사를 시키고 있다. 2015학년도 1학기의 경우 55개팀에 교수 51명, 학생 790명이 각종 시설과 기관에서 사회봉사에 참여하였다.

4) 교수들을 위한 ‘신앙과 학문’ 프로그램

학생들의 영성교육에 목사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과 학문’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교수를 위한 영성교육으로는 ‘성경에 기초한 신앙과 학문 연구’ 라는 프로그램을 2007년에 개설하였다. 신앙과 학문1과 2는 1학기 과정이고, 신앙과 학문3는 1년 과정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총 이수자수는 연 278명이 이수하였다. 전체 전임교원은 392명으로 이들의 44.1%가 신앙과 학문1을 이수하였고, 20.7%는 신앙과 학문2까지 이수하였고, 6.1%는 최고과정인 신앙과 학문3까지 이수하였다.

〈표 18〉 신앙과 학문 이수자 수 (2015년 1학기까지)

	시작연도	현재까지의 이수자수	전임교원대비 이수율
신앙과 학문연구1	2007년 제2학기 1학기 1회	173명	44.1%
신앙과 학문연구2	2009년 제1학기 1학기 1회	81명	20.7%
신앙과 학문연구3	2012년 1년 1회	24명	6.1%
계		278명	전체 392명

5) 개혁주의 생명신학 8대 실천운동

백석대학교의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는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자 2010년 5월에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을 발표하고 7대 실천운동을 주창하였다. 이는 한국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를 향한 종교개혁 운동이다. ① 신앙운동, ② 신학회복운동, ③ 회개용서운동, ④ 영적생명운동, ⑤ 하나님나라운동, ⑥ 나눔운동, ⑦ 기도성령운동이다.

V. 결론

기독교대학에서는 영성교육을 추구한다. 교육은 지성, 감성, 인성, 영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통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이란 단순한 지식전달 이상의 것이다. 도덕·윤리교육만으로는 의식수준이 일정한 한계 이상을 초과하기 어렵다. 조건없는 사랑과 자비와 연민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성교육이 필요하다. 영성교육을 통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개인이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 바람직한 영성은 통전적 영성(integration of spirituality)이다.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진 영성이 아니라 지성, 감성, 인성을 내포하고 포괄하는 영성교육이 되어야 한다.

영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영성은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견되고 계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성경 지식의 습득이나 예배 참석 만으로는 영성이 성장하지 않는다. 영성은 계발되어야 하고 길러져야 하고, 삶을 통해 체험되어야 한다.

영성은 두 가지 통로로 길러진다. 하나는 교육훈련과 체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교육되고 훈련되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영성이 길러진다. 영적능력은 하루 아침에 배

양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달려있다. 다른 하나는 강력한 성령체험에 의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우이다. 성령체험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때만 주신다.

영성은 피동적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지식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길러지지 않는다. 만약 학생들의 영성교육이 다음과 같은 상태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영성교육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① 예배는 참가하지만, 성경은 거의 읽지 않는다.

② 기독교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다.

③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

④ 신앙생활을 통해 개인에게만 적용하고, 세상을 바꾸는데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영성의 성장을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으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과 봉사를 경험하고 실천함으로써 영적 민감성이 길러져야 한다. 종교적 체험이 없는 영성생활은 생동감이 없는 관념주의적인 주지주의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백석대학교의 영성교육은 성경적 지식과 신앙으로 인도하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성교육을 위해서는 소그룹 성경공부와 기도훈련 등을 활성화 하여 영적 민감성을 길러주고 습관화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공부 모임과 기도모임을 담임목사와 지도교수가 이끌어야 한다.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영성교육과 관련하여 각 전공분야 교수들의 상담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모든 교수가 영성교육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백석대학교의 TV광고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멘트가 있다. 정말 그렇다. 학생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줄 때 학생들이 변한다. 사랑은 지식으로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행동해야 체득하는 것이다. 사랑을 체험한 학생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교수의 역할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영성을 심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영성교육과 영성지도는 목사만의 사명이 아니라 교수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야 하고 효과적인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은 이 예배나 이 교육이 왜 필요한지, 전체적인 영성교육의 틀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한다.

기독교대학의 교수는 학생들을 생명의 길로 안내할 책무가 있다. 기본적으로 가

르치는 자가 먼저 자신의 영혼을 세심하게 보살피야 한다. 깊은 영성을 갖춘 교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전공분야의 교수들을 영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신앙과 학문>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전인적 교육이란 가르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영적 비전을 형성하여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

참고문헌

<논 문>

- 고요한(2011). “가르침과 배움에서 영성형성의 의미와 방법에 관한 교육인간학적 고찰.” 『교육철학연구』. 제33권 제3호(2011.10). 1-23.
- 김규섭(2012). “기독교 교육과 영성훈련.” 『국제신학』. Vol.14. pp. 7-20.
- 김도일(2010).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는 기독교 영성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32권. 한국종교교육학회. 1-21
- 김영래(2003). “영성교육의 관점에서 본 홀리스틱 교육운동의 의미 : 발도르프 교육의 지식이해를 중심으로-.”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지』. 제7권 제1호 15-35.
- 김은미(2011). “기독교 영성의 개념 연구 - 칼빈의 사상을 중심으로-.” 『신학정론』. 제29권 제1호. 197-216.
- 김정준(2008). “존 웨슬리의 영성수련과 현대 영성교육적 의미 - 제정된 은총 수단을 중심으로 -.” 『종교교육학연구』. 제28권 19-40. 한국종교교육학회.
- 문석호(2004). “현대 기독교와 영성.” 『신학지남』. 91권. 167-213.
- 양은미(2012). “대학 신입생들의 영성과 대학교육의 역할에 대한 탐구.”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1호. 289-328.
- 임영택(2006). “영성교육의 모형과 지도력.” 『기독교교육정보』. 제13집. 123-144
- 장화선(2005). “영성교육의 내용과 실제에 관한 연구.” 『복음과 교육』. 제2집. 274-297.
- 정정미(2010). “유아 영성의 이해와 그 교육적 적용에 관한 고찰.” 『기독교교육학보』. 제27집(2010.10). 383-403.
- 주정관(2012). “요한 칼빈의 경건으로 조명하는 영성교육.” 『복음과 교육』. 제12집 11-34.

<저 서>

- 김춘식(2015). 『위키학습법』. 이데아시티.
- 데이비드 호킨스 지음/ 이종수 옮김(1999). 『의식혁명』. 한문화
- 리처드 포스터(Richard J. Foster) 지음/송준인 옮김(2010). 『기도』. 두란노.
- 마틴 셀리그만 지음/ 김인자 옮김(2006). 『긍정심리학』. 물푸레.
- 파커 J. 파머 지음/이종인·이은정 옮김(2008) 『가르칠 수 있는 용기』. 한문화.

Astin, Alexander W., Astin, Helen S., Lindholm, Jennifer A.(2011). *Cultivating the spirit : how college can enhance students' inner lives*. San Francisco : Jossey-Bass.

<보고서>

백석대학교 교목실. 『대학예배 설문조사 결과 보고』. 2011-2015.

백석대학교 교목실. 『세례자 통계』. 2011-2014

백석대학교 교무처. 『2015 백석대학교 요람』.

백석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신입생 실태조사』. 2011~2014학년도